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0호 방자유기장  
보유자

김문익



## 방짜, 두드림의 미학



방짜 유기는 불에 녹여낸 합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오직 두들겨서 만들어 내는 유기를 말한다. 원래 방짜란 말은 두드리기 전의 합금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요새는 두드려 만드는 유기를 칭하는 말이 되었다.

주물로 녹여 내면 될텐데 왜 하필 두들겨서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첫째는 징이나 팽과리와 같은 악기는 주물로 만들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악기는 음을 조율해 주어야 하는데, 음을 맞추기 위해서 두께와 크기를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

둘째로 방짜 제품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방짜란 구리와 주석을 72:28로 섞은 합금이다. 이 비율이 0.01%라도 틀리거나 아연이나 다른 합금이 조금만 섞여도 두드리면 터져버린다. 때려서 악기와 그릇을 만들어 내는 것도 신기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런 비율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다.

구리와 주석 외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합금이 금과 은이다. 금은 악기에 섞이면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낸다. 은이 섞이면 높은 소리를 낸다. 금은 식기에도 들어간다. 금이 섞인 유기는 손으로 만져도 손자국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고급품일수록 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 공방에서 제작하는 식기 중에는 밥그릇, 국그릇 한 조에 금7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

## 엄격함, 하지만 유기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문익은 경남 함양군 안의 출신이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방짜 유기, 그 중에서도 꿩과리와 징, 바라 등 악기제작으로 유명하던 고장이다. 60년대 이전만 해도 유기는 대단히 수익성 높은 상품이었다. 얼마나 별이가 좋았는지 “하루 일하면 식구를 한 달 먹일 수 있다”, “유기장 집 개는 쌀밥도 안먹는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한다.

보수가 좋았던 만큼 기술의 전수과정도 어려워서 보통은 자기 자식 외에

는 절대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전수과정도 아주 엄격해서 함부로 다른 연장을 만지기만 해도 당장 쫓겨났다고 한다. 김문익은 유기업에 종사하는 고모부와의 인연으로 12살 때 이 길로 입문했다.



▶ 7첩 반상기

방짜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는 제작할 수 없고 6명이 한조를 이루어야 한다. 한사람은 화로에 바람을 넣어주는 풍금을 잡고, 한사람은 쇠를 다시 불에 달군다. 한사람이 달군 쇠를 집게로 잡으면서, 세 사람이 망치를 들고 차례로 내려친다.

어떤 고정된 틀이나 보조기구는 전혀 없다. 아무런 형체를 만들어 낸다. 형이 나오면 식기는 표면을 깎아서 다듬어서 광을 낸다. 팽과리는 징은 다시 고망치라는 작은 망치로 두드려서 음을 조율한다. 이것을 “소리 잡는다”고 한다.

소리를 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도에 따라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무속용이라고 해도 산에서 사용하는 것과 배에서 사용하는 것, 보살이 사용하는 것이 다 소리가 다르고, 지방에 따라 또 다르다. 그러므로 사실은 주문을 받으면 합금할 때부터 금은의 배율을 다르게 해야 하고, 소리 잡을 때도 원하는 소리를 내주어야 한다.

##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한다

옛날 악기와 지금 악기의 소리도 다르다. 옛날에는 황소 울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간다고 소리가 크고 멀리 퍼져야 했다면 요즘의 현대 악기에 맞추어야 하므로 잡음 없고 부드러운 소리를 선호한다. 이래 저래 숙련된 장인의 솜씨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성황을 누리던 유기업은 60년대에 들어 급속히 쇠락했다. 5.16이후 유원지에서 놀이를 금지하고, 무속인들을 배척하면서 징과 팽과리의 수요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또 하나의 주범은 60-70년대의 한국의 명물이었던 연탄이었다. 원래 유기는 수십 년을 사용해도 색이 변함이 없고 아무리 오래

된 것도 한번 닦아주면 광채가 살아난다고 했던 것인데, 연탄가스가 이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가스에 오염된 유기는 빛을 잃고 시커먼 얼룩을 남기며 변색되어 갔다. 결국 사람들은 연탄가스에도 끄떡없고 값싼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눈을 돌렸다.

다행히 80년대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계기로 국악 붐이 다시 일어나고 최근에는 유기가 독성이 전혀 없고,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한식당, 냉면집에서 유기를 찾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유기의 생산단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현재 김문익의 공방은 군포시 대야동에 있다. 7월에 근처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 이전하는데, 시에서 전시관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김문익은 군포를 유기공업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한다.





▾ 요강 / 세수대야

경기 문화 재발견 시리즈 14  
늦쇠에 거는 희망

# 방짜 유기장



 경기문화재단

- ▶ 기록영상 : '늦쇠에 거는 희망'  
(경기학연구센터)센터자료)영상자료'에서 시청 가능)

[전통을 잇는 사람들] <17> 방짜유기장 김문익

늦쇠 덩어리 밤샘 매질로 '아주 쓸만한 그릇'을 빛다

'아이구, 저 놈 참 방짜네!' 하는 짓이 기특하고 똑똑해 보이는 어린 녀석에게 옛날 어른들이 환하게 웃으며 던지던 대사였다. '방짜'라는 독특한 어감 때문에 그 의미를 그냥 무심히 '괴짜' 정도로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10호 '방짜유기장' 김문익(67)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그 '방짜'의 의미가 선명해졌다.



◇방짜유기장 김문익씨가 완성된 솟대를 살펴보고 있다. 칠순을 바라보는 김씨는 12살에 유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방짜유기 만들기의 한길을 걸어왔다.

'아이구, 저 놈 참 방짜네!' 하는 짓이 기특하고 똑똑해 보이는 어린 녀석에게 옛날 어른들이 환하게 웃으며 던지던 대사였다. '방짜'라는 독특한 어감 때문에 그 의미를 그냥 무심히 '괴짜' 정도로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10호 '방짜유기장' 김문익(67)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그 '방짜'의 의미가 선명해졌다.

“방짜는 옛날 합금을 때려서 만드는 게 특징이지요. 주물 같은 건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하다보니까 56년이 흘러버렸네요.”

구리와 주석을 적정 비율로 혼합해 녹여낸 늦쇠 덩어리를 장정 6명이 호

흡을 맞춰 메질을 해서 그릇과 악기를 만들어내는 게 ‘방짜유기장’의 일이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사용된 놋그릇은 그 재료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구리에 아연을 넣은 주동과 아연 대신에 주석을 넣은 향동이 그것인데, 향동이 더 고급의 놋쇠이다. 이는 방짜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주동에는 소량 함유되기 마련인 납 등의 불순물이 방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무독성의 재료이기 때문에 식기의 재료로 널리 애용되어 왔다. 그러니 사람을 보고 ‘방짜’라 하면 “아주 쓸 만한 그릇”이라는 칭찬이다.

김문익씨는 양반 집안인 안동 김씨 출신이었지만 천한 사람이나 배우는 유기 기술이라 하여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12살 때 유기장 최두건 공방에 입문했다. 이후 이곳에서 13년간 기술을 연마했고 다시 무형문화재 이봉주 휘하에 들어가 17년 동안 평북 정주의 납청방짜 기법도 배웠다. 그의 능력은 1992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인정받았다.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그가 만든 징과 쟁과리를 오랫동안 사용했고, 1980년대에는 내리 7년 동안 한국문화재협회 전승공예전에서 입상한 이력이 돋보였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대에는 쟁과리 소리가 저음이었는데, 먹고 살만해진 요즘에는 높은 소리로 만듭니다. 옛날에는 농촌에서 논매기할 때 힘을 덜 들게 하느라고 농악을 치다 보니 소리가 저음이었는데, 요즘은 사물놀이패들이 늘어나면서 현대음악과 맞추다 보니 배고픈 시대도 아니어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죠.”

방짜로는 그릇 말고도 쟁과리나 징 같은 악기도 만든다. 김문익의 방짜 악기는 특히 성가가 높은 편이다. 그는 악기를 만들 때 ‘울음깨기’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소리잡기’의 공정에서 첫 울음을 어떻게 ‘깨우느냐’에 따라 징이나 쟁과리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구리 72%와 주석 28%의 비율로 용해해 만드는 일반적인 방짜와는 달리 악기를 만들 때는 주석 함량

을 배로 높이고 금과 은을 섞기도 한다. 그는 “턱수패 사물과 손발을 맞추다 보니 금과 은까지 넣게 됐다”면서 “금은 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은은 높은 소리를 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통 방짜 작업의 하이라이트는 장정 6명이 심야에 새벽까지 합금에 메질을 하는 장면이다. 용광로에서 꺼낸 합금을 용도에 맞게 오려낸 뒤 적당히 다시 가열을 해서 두들겨 성형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메질 장면이다. 망치질 3명, 집게 1명, 풍구질 1명, 쇠달구는 사람 1명이 호흡을 맞추어 정신을 집중해서 쉬지 않고 최소 3시간 이상을 작업을 해야 한다. 지금도 김씨는 이 두드리기 작업을 할 때 만큼은 잡념이 들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하는데, 두드리는 리듬과 강약에 따라 그릇과 악기의 질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옛날에는 관솔불을 밝혀놓고 밤 11시부터 사람들 모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만 빠져도 일을 못했지요. 이젠 달라진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진짜 방짜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허전합니다.”

낮에는 방짜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일을 하기가 힘들어 밤에만 작업을 했다는 방짜유기장 김문익씨. 그가 평생 해온 작업이니 진짜 방짜 만드는 일이야 어렵지 않을 터이지만, 인간 ‘방짜’들은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글 조용호 선임기자, 사진 이종덕 기자 [salmons@segye.com](mailto:salmons@segye.com)

## 경기일보

▶ 뉴스 > 지역종합 > 군포시

### 군포시,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이달말 착공

김성훈 기자 magsai@kyeonggi.com | 노출승인 2017년 06월 13일 19:44 | 발행일 2017년 06월 14일 수요일 | 제1면



군포에 구리와 주석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청동 제품, 방짜의 탄생부터 역사, 활용 방향 등까지 한 곳에서 알 수 있는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이 이달말 도마교동 206 일원에 착공돼 내년초 준공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의 전시동, 지상 2층 규모의 공방동으로 구분해 건립될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은 전시동에 전시실, 체험홀, 판매실, 수장고 등이 배치돼 방문객들이 방짜유기를 눈과 손으로 모두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군포시는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 건립 완료되면 공개 행사 등을 통해 시설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010-4263-0807/ skyland6472@hanmail.net

정보 : 국일방자유기(<http://www.gukilyugi.co.kr>)